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병원 난항

목포중앙병원이 서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성·가정·학교폭력 피해자 신변보호와 상담·조사 등의 역할을 했던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포기한 가운데 제2 거점센터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도는 6차 공모결과 영광기독 병원이 운영 의사를 밝혀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찰은 거리와 범죄 발생비율 등의 이유로 목포지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은 전남서부 해바라기센터가 다음달 30일 계약 종료돼 다른 운영병원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월 15일부터 5차례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4월 6번째 공모 끝에 영광기독 병원이 참여 의지를 밝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가 최종 현장실사 까지 마쳤다. 결과는 다음주 초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바라기센터는 산부인과와 응급 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설치가 규정이며 상담실과 진술녹화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100㎡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운영비는 정부와 전남도가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거리와 범죄발생비율 등을 이유로 해바라기센터가 목포에 설치돼 기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지역에는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순천성기률로 병원에 동부해바라기센터가 설치돼 있다.

서부권의 경우 신안 섭지역을 비롯해 진도와 완도 등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신속 처리를 위해 지난 2010년 목포중앙병원은 서부해바라기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찰 5명과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행정 업무 담당 등 1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31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전남서부지역 13개 경찰서에 지난해 접수된 성·가정·학교폭력 사건은 총 438건이며 이 중 174건이 목포에서 발생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서부권 중 목포지역의 범죄 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속 대처를 위해 목포에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영광에 설치될 경우 목포에서 1시간이상 떨어져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영광지역에 설치가 된다면 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거점병원 마련 등

목포중앙병원 내부문제로 센터 운영 포기

전남도, 6차례 공모…영광기독병원 희망

경찰, 범죄비율·지리적 여건…목포가 적합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목포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에 맞는 병원을

만났지만 공간확보와 수익성이 낮아 의료기관들이 난색을 표했다”며 “의료기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생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목포중앙병원은 지난해 11월 내부갈등이 발생하면서 전남도에 협약 해지 요구서를 접수했다.

김정환 기자



학생들이 만든 스승의날 피켓

스승의 날인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교사법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을 방문해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만든 피켓을 전달하고 있다.

남광주시장 이마트 입점 동의서 보완 요구

이마트가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에 입점을 주진 중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와 관련, 관찰 구청이 시장상인회에 입점동의서 보완을 요구했다.

1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상인회가 제출한 입점동의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상인의 의견을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공정한 방법으로 시장 상인의 정확한 찬·반 의견을 재조사한 뒤 동의서를 다시 작성, 제출

해줄 것을 상인회에 요청했다.

동의서 보완 시한은 오는 20일 오후 6시로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마트는 ‘시장 내 상인회 2곳 모두 입점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상인 입점동의서를 동구에 제출했다.

이후 상인회 1곳 소속회원 중 일부 반대상인들은 상인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입점 동의 설문 조사를 벌였다. 설문 결과 전 회원의 78%에 해당하는 42명이 입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마트가 제출한 입점동의서에는 해당 상인회 소속 반대상인 13명은 구청에서 동의서를 직접 열람, 일부 찬·반 의견이 다르게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

실제로 상인회 소속 반대상인 13명은 구청에서 동의서를 직접 열람, 일부 찬·반 의견이 다르게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

동구는 오는 2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동의서 등 입점 등록 서류를 검토한다.

조인호 기자

‘광주 오늘 33도’ 올해 첫 폭염특보

역대 최단 기록

올 여름도 만만치 않은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5일 오후 3시를 기해 광주시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는 폭염특보

를 시행한 2008년 6월 1일 이후 가장 빠른 폭염특보 발표다. 이전까지 폭염특보가 가장 빨리 발효된 기록은 5월 19일이다. 2016년 5월 19일엔 경기 동북부지역에, 이듬해인 2017년 5월 19일엔 대구광역시 및 경상도 일부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0도다.

기상청은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빛에 의해 기온이 상승한 결과”라며 “16일도 광주 지역의 낮기온이 33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